

V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훈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랑하울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2/23(일) 연중 제 7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2/25(화) 주임 신부님 휴가기간에는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3/ 1(토) 성모 신심 미사(본당 11:00,) 미사 후 사목회의
 ▶3/ 2(일) 연중 제 8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성수예식과 3월 축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본당 신부님 휴가로 가톨릭 평화 방송 미주 지사장이신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께서 오늘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3/5(수) 재의 수요일(19:30 미사) 안내
 ■성지 가지 회수: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지가지 회수합니다.
 복도 테이블에 있는 바구니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십자가의 길 안내(매주 금요일 19:30)
 ■3/7 사목회 ■3/14 해설, 독서단 ■3/21 울뜨레아
 ■3/28 꾸리아/바뇌기도회 ■4/4 성모회/성가대
 ■4/11 주일학교 자모회/복사단/자모회 ■4/18 구역장
 ※해설(1), 십자가(1), 초복사(2) 각 단체별 봉사자 4명과 십자가의 길 내용을 전례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단체 및 각 구역 장점 소개
 분량은 약 5분이내. 핸드폰으로 찍으실때는 반드시 가로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단체 및 구역 **소개와 장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총무 김성수 베드로 형제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과 신심단체, 성모회, 성가대, 성몰방, 전례부, 주일학교, 복사단, 전례 해설단, 사목회 등)

- ◎사목회의 3/1(토) 성모 신심 미사 후 대철실
- ◎구역장 회의 3/2(일) 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 ◎은빛 모임 3/2(일) 친교 식사 후 친교실
- ◎온타리오 지방 선거
 우리 성당이 선거투표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2/26 (수) 17:00 ~ 20:00 ■2/27 (목) 7:00 ~ 23:00
 이 시간 동안은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소식**
- ◎울뜨레아 쇄신포정
 •기간: 2025년 2/ 28 (금) 오후 5시 – 3/ 2 (일) 오후 3시
 ※신청서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 공소 소식**
- ◎ 이번 주부터 성모회에서 공소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식사비를 일인당 \$5(10 세 이상) 받습니다.
- ◎ 본당 김대하 사도요한 신부님 휴가 기간(2/10 ~ 2/28) 중
 미사집전 신부님 안내
 2/23(일) -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

- 구역모임 (소식)**
 6 구역: 2/23(일) 14:00 친교실
- 친교 식사**
 2/23: 6 구역 (비빔밥, \$5/\$3)
 3/ 2: 5 구역 3/9: 7 구역 3/16: 1 구역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41 명)			
주일헌금	\$360	교무금	\$4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390

- ◎3 월 축일자 명단 (10 명)
 3/ 7 테오플로(이정길)
 3/12 세라피나(임선녀)
 3/19 요셉(정시안, 조용구, 조운형, 이인규, 임종선)
 3/22 레아 (홍준희)
 3/25 그라시아(김경희)
 3/31 벤자민(이강현)

2025 희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배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희년 (禧年, year of jubilee)
 신자들 회개해 구원·해방되고 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정한 해. 전대사로 별 면활 수 있게 도와
 -신자들이 하느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해. 같은 말 성년(聖年)
 구약의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낸 49년의 다음해. 즉 50년이 되는 해에 지낸
 축제다. 희년은 빛을 진 사람들이 모든 빛을 탕감 받고,
 노예들이 해방돼 자유를 얻는 해였다. 구약의 희년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상기시켰다
 오늘날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다.
 예수는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에 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구약의 희년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정신을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했다면, 오늘날의 희년은 영성적 차원에서
 이를 실천한다. 희년 동안은 전대사가 선포돼 신자들은
 교황이 정한 조건과 순례 등을 통해 고해성사에
 참여하고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가톨릭 신문)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2/23	이인선 젬마	최두원 스템파노, 박수은 헬레나	1 독서: 신낙홍 마리아 2 독서: 권희진 요안나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3/2	이은영 힐데가르트	송찬 아론, 이지민 이사벨라 유서진 다니엘,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강지원 요안나 2 독서: 임연신 비아	신낙홍 마리아 권희진 요안나
3/9	박규혜 카타리나	최아현 베로니카,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권희진 요안나 임연신 비아

‘뭐 인지상정이 아니겠나.....’

오종섭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야음성당 주임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례 그려려니 하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배 아파하는 맘보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은혜 같음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선한 마음을 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보따리)을 뺏으려 하는 맘보도, 호미 같은 작은 노력으로 해결할 일을 안일하게 방치하다가 가래 같은 큰 수고를 하며 겨우 수습하게되는 경험들 모두가 인지상정 곧,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흔한 일들로 우리 각자도 살아가면서 흔히 경험해본 마음 상태일 것입니다. 살다가 겪게 되는 이런 흔한 경험들도 막상 내가 경험하면 맘 속에 상처가 되고 결코 기껍지만은 않은 쓸쓸함을 남깁니다. 이럴때 맘을 다잡기 위해 ‘뭐, 인지상정 아니겠나…’하며 자조 섞인 혼잣말을 하게 되지 싶습니다.

오늘 연중 제 7주일 복음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 주라.”, “다른 사람을 단죄하지 마라.” 같은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까지 하라고?’,’내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내가 나서서 그냥 주라고?’,’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냥 놔두라고?’,’내가 바보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고 세상에 누가 나보고 뭐라 할 건데?’하는 생각도 당연히 듭니다. 그건 ‘인지상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실천하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 역시나 ‘인지상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닌 인간적인, 다르게 말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하느님 은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적적인 노력에 더 매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 은총의 도움에 우리 자신을 좀 더 열어 놓기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신자분들 모두 편안한 한 주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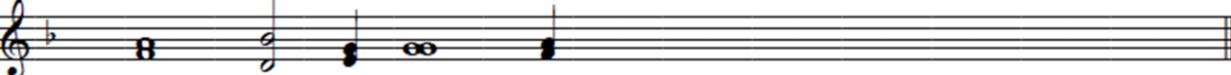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7주일

(2025. 2. 23.)

제 1 독서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26, 2.7-9.12-13.22-23
화답송 시편 103(102), 1-2.3-4.8 과 10.12-13(◎ 8 ↗)



후렴.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5, 45-49

복음 환호송 요한 13, 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 27-38